

## 잇단 백신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기수 / 국민일보 생활과학부 기자

올 해는 여느 해와 달리 각종 전염병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뇌염이나 장티푸스 등의 치명적인 전염병이 크게 유행할 염려가 높아서 방역당국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 듯하다.

그 이유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유독 올해 적어진 탓이다.

최근 6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뇌염백신사고에 겁을 집어먹은 일반인들의 상당수가 예방접종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최근의 잇단 뇌염백신사고와 관련, 두가지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국가보건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나간 일에 계속해서 미련을 갖고 가타부타 따지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한 일일 뿐더러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지금은 이제까지의 사고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물샐 틈 없는 국가방역체제를 확립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당장 코 앞의 현안으로 대두된 유클렘의 전염병 방역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만연우려가 높은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갖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뇌염모기의 방제에 어느 때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장티푸스 등 각종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물을 반드시 끓여 먹는 등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할 일은 많다고 본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각종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안전한 백신제제의 공급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철저하게 분석 정리하여 재발 예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결국 최근의 뇌염백신사고는 환자의 특이체질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정부측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제에 또 다른 백신사고를 예방하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그것은 제조-유통-소매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제조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백신제제 밀봉기술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백신을 담은 용기의 뚜껑이 제대로 밀봉처리되지 못하게 되면 유통단계에서 세균, 특히 호기성세균의 오염으로 약물이 변질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모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여러 회사의 백신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한두 번씩은 꼭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백신이 배달돼 해당 제약회사에 항의하고 반품시키는 소동을 겪어왔다고 털어놨다.

둘째, 유통과정에서의 문제는 반드시 저온상태에서 냉장보관 및 수송해야 할 생물학적 제제를 일반의약품들처럼 함부로 실온에서 보관하다가 병의원 등의 주문을 받으면 그대로 배달해 주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역시 변질 및 변태우려가 높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직접 백신을 주사하는 소매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의원에도 문제는 있다. 예방접종을 하는 날을 특정한 날로 지정, 접종대상자를 모아서 주사하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보통 20명분 단위로 밀봉된 용기에서 10명 분량을 한 주사기에 담아 차례로 조금씩 주사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이 때는 연쇄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 경우는 원래 한 사람에 한 번씩 1회용 주사기로 적당량을 뽑아 주사해야 하는

6월 한 달간 산발적으로  
일어난 뇌염백신사고에 대해  
상당수의 일반인들이 겁을 집어먹고  
예방접종을 기피하고 있다.  
또다른 백신사고의 예방을 위해  
제조-유통-소매 단계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

백신제제의 주사원칙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백신제제를 주사할 때는 반드시 피하나 근육에만 주사하여 혈관을 다치지 않도록 주사기술교육에 힘쓰으로써 주사과정에서 혈관을 손상, 약물이 혈관 속으로 흘러들지 않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것은 어린이 환자들을 많이 대하는 소아과에서보다는 백신주사가 일상화되지 않은 산부인과, 내과 계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일수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제약회사 입장에서선 밀봉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만의 하나 자동화 생산공정에서 있을지 모를 기계의 오동작으로 인한 포장잘못을 줄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며 유통단계에서도 반드시 냉장보관 및 유통체계를 확실하게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들의 백신주사기술을 재교육, 주사를 잘못 놓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요청되며, 나라에선 이들을 수시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 사고방지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